

레지오 훈화 -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4-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제8장에 비추어 본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 (3)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표현은 성모 마리아께 '공동 구속자' 칭호를 부여하는 맥락에서만 그 이해와 수용이 가능하다. 곧 성령의 구원 활동에서 이른바 '공동 구속자'이신 마리아께 그 모든 것이 맡겨짐으로써 마리아의 중개로 실질적인 구원 역사의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선서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레지오 마리아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는 "마리아가 성령과 이루는 결합은 진정 긴밀한 것이어서, 마리아는 단지 청할 뿐이지만 그 청은 곧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뜻을 항상 모두 세세하게 헤아리고, 그것을 행동 안에 반영합니다. 그분들의 관계는 그러한 것이어서, 성령께서는 말하자면 모든 것에 대한 운영을 마리아에게 넘겨주실 수 있지만, 그대로 모든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윗글은 성모 마리아께서 '공동 구속자'이시라는 기본 이해 아래 제시된 것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 제8항에 천명된 마리아론의 기본 원리들에 비추어 본다면, '공동 구속자'라는 칭호를 하나의 믿어야 할 교리로서 성모 마리아께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시절, 대답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현재 그 지지자가 수백만에 이른다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바는 이미 더욱더 적절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다른 호칭 속에 들어 있으며, 이에 반해 '공동 구속자'라는 표현은 성서나 교부들의 말씀과 워낙 동떨어진 것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27~29쪽>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5명 중 주일미사 192명 참례 / 참례율 : 26.85%

평일미사	토 (4/26)	월 (4/28)	화 (4/29) 내촌 / 본당	수 (4/30) 본당 / 송정	목 (5/1) 송정 / 본당	금 (5/2) 본당 / 두촌
	10명	11명	17명 / 19명	12명 / 9명	9명 / 29명	22명 / 17명
주일미사 (4/27)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2명	22명	37명	31명	59명	21명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2주일

주일 헌금	1,329,000	교무금	1,220,000	감사 헌금	550,000
양성, 복지, 원로	120,000	성전건축 적립금	255,000	미래 기금	135,000

교무금 권오순, 최재길, 이종석, 최미경, 김순덕, 장혜분, 주선옥, 최정화, 박갑성, 문민자, 권선화, 박순우, 김은자, 이원일, 김승례, 김종광, 최은희, 박희명, 조성근, 윤영진, 박광열, 신성철, 이창형

감사헌금 최원석(시몬) 100,000 차찬호(바오로) 50,000 신오순(안나) 30,000 이인열(울리타) 20,000 전영립(안나) 50,000 박금선(울리타) 50,000 최재길(아오스딩) 50,000 두촌역내구역 100,000 원세문(다미아노) 100,000

제6차 추기경 전체회의, 도나토 올리아리 아빠스

“콘클라베는 성령의 자유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콘클라베는, 용어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열쇠로 잠근 장소”가 아니라, ‘젊어지게 하고, 정화하고, 창조하는 성령의 자유’가 우선하고 온 세상을 향해 열린 “다락방”이어야 한다. 이는 베네딕토 수도회 ‘성 밖의 성 바오로 수도원’ 도나토 올리아리 아빠스가 4월 29일 오전 새 시노드홀에서 열린 제6차 추기경 전체회의 묵상에서 촉구한 내용이다. 5월 7일 시작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로마에 도착한 추기경들이 참석했다. 올리아리 아빠스는 성령께서 대화와 “인간의 모든 회의”를 특징짓는 “때론 변증법적인 역동성”의 “주인공”이라며, “교회와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눈을 밝혀”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를 위한 중대한 순간

올리아리 아빠스는 묵상을 시작하며 교황 선출과 같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순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신과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단지 “차디찬 불모의 기관”에 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올리아리 아빠스는 이러한 확신 위에 매일 “자기 자신을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오직 그럴 때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제시하는 쉬운 도피의 길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리아리 아빠스는 그리스도가 추기경단의 호흡이요, 나침반이요, 북극성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 마음, 용기, 예언자적 태도

올리아리 아빠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 자비롭고 동정 어린 사랑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교회는 “열려 있고, 용감하고, 예언자적”이며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싫어하고”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권고했듯이 존중과 대화, “만남의 문화 그리고 장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문화”가 특징인 “형제애의 스승”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작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계모가 아닌 어머니로서,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인류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교회는 무엇보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상속받지 못한 이들, 마지막 자리에 있는 이들을 중심에 두는 교회다. 이와 관련해 올리არი 아빠스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입한 “신학적 범주”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가난은 사회학적, 윤리적 문제이기 이전에 “교리와 관련된 문제”다. 이런 까닭에 그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눈과 마음을 계속 활짝 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꿈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노드 여정: 참여와 쇄신

올리არი 아빠스는 참석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성령의 식별에 자신을 맡길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교회의 일치와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치와 친교는 “다양성 안의 일치, 다채로운 친교”로 이해되며, 그 안에서 다름은 “존중하고 대화하는 만남의 기회, 함께 걸어갈 창의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시노드 여정”에 대한 성찰이 나왔다. 올리არი 아빠스는 “일부 당혹감이나 정체”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이 “세계 각지에서 참여와 쇄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교계제도로서의 교회와 평신도로서의 교회 사이에 “풍요로운 결합”을 촉구했다. 두 측면 모두 친교로서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시노드 여정이나 시노드 과정은 사회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친교, 참여, 사명 사이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

세상 속 교회의 도전들

올리არი 아빠스는 묵상의 상당 부분을 세상 속 교회의 도전들에 할애했다. 그는 인간학적 변화, 동족상잔의 전쟁, 독재와 민족주의, 순수 이윤에만 기반한 후기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피조물 파괴, 새로운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 이주 문제, “환대와 연대, 포용의 거룩한 원칙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정치의 무능”, 특히 서구 사회의 “광범위하게 퍼진” 세속화 등을 언급했다. 이 모든 갈림길 앞에서 교회는 “두려움 없이” 대화의 길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영역에서 강화한” 것으로, 교회 사명의 “본질적 요소”라고 올리არი 아빠스는 강조했다.

교회 내부의 도전들

올리아리 아빠스는 “고름 맺힌 상처”와 같은 성 학대 문제,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의 감소,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언어 모색, 여성의 역할, 성직주의와 사제직의 관료화 위험 등 교회 내부의 도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 결실도 거두지 못하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배척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곳에서도 “교회가 모든 곳에서 행하는 엄청난 선익”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격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많은 상처와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분의 살아 있는 현존”을 보라고 초대했다.

인내와 희망

올리아리 아빠스는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또 다른 이미지, 곧 웅기장이(주님)의 작업장을 제시했다. 주님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진흙을 빚으시며, 인내심으로 작업하며 실패 앞에서도 “끈기 있게 노력하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신다.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르쳤듯이, 인내는 “희망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희망의 자녀이자 지지대다. 이런 관점에서 올리아리 아빠스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는 희망할 줄 아는 교회이며, 미래에 열정적인 교회”라고 말했다. 그 미래에서 하느님은 인류를 만나러 오신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모범

마지막으로, 올리아리 아빠스는 이탈리아와 유럽이 축일로 지내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축일인 이날 추기경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기경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미쳐 교회의 개혁과 일치, 평화와 교황을 위해” 쉽 없이 노력했던 가타리나 성녀를 바라보라고 권고했다.

(바티칸 뉴스 5월 2일자 기사, 번역 김호열 신부)

5월 7일부터 새 교황님의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모든 하느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실 교황님의 선출 때까지,

주님께서 착한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